

# 국립공원 방문의도 형성의 위계성 검증

홍성권\* · 장호찬\*\* · 이석호\*\*\*

\*건국대학교 환경과학전공 · \*\*국립방송통신대학교 관광학과 · \*\*\*동국대학교 관광경영학과

## 1. 서론

여행자들이 어떤 과정으로 목적지를 선정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마케팅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학계와 업계의 관심사이었다. 이에 따라, 많은 모델들이 제시되었지만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선택세트모델(choice set model, CSM) (Crompton, 1992)이다. CSM은 많은 수의 대상지가 포함되는 초기고려대상지(initial consideration set)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대상지가 포함되는 후기고려대상지(late consideration set)로, 후기고려대상지에서 최종목적지가 순차적으로 선택되며, 이 과정에 추진요인(push factor), 유인요인(pull factor) 및 제한요소(constraint)가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러나 기존연구들은 어떤 방법으로 방문자들이 대상지의 개수를 단계별로 줄여가며, 어떤 변수들이 단계별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초기고려대상지에 포함된 대상지와 제외된 대상지간에 추진요인과 유인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후기고려대상지에 포함된

대상지와 제외된 대상지간에는 제한요소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Um and Crompton, 1992).

관광대상지를 선택할 경우에는 비교 대상지가 무수히 많고 속성들이 많아 서로간의 장단점을 평가하기란 쉽지 않아, 사람들은 대상지 비교에 필요한 노력을 줄이기 위해 단순화 전략(simplifying strategies)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즉, 대상지를 유형화(categorization)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대상지의 정서적 이미지(affective image)는 후기고려대상지의 형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변수이다. 왜냐하면, 방문자들은 대상지 자체가 아니라 대상지의 인식된 유인요인에 의해 방문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Luckett, Ganesh, & Gillett, 1999). 그러나 기존 CSM 연구에서는 대상지의 유형화는 물론 정서적 이미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CSM의 또 다른 약점은 단계별 의사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Nested Multinomial Logit Model(NMNL)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전통적으로 선택행동은 logit model로 추정해 왔지만, 이 모델은 모든 대안들의 대체성(substitution)이 동일할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현실 적용에 문제가 있었다. NMNL은 유사한 대안들을 단계별로 집단화함으로써, 동일 집단 내에 포함된 대상지간에는 대체성이 동일하지만 다른 집단에 포함된 대상지 간에는 대체성이 다르다고 가정함으로써 logit model의 불합리한 가정을 배제하였다. 이러한 합리적 가정을 바탕으로 NMNL은 유사한 집단이 선택될 확률(marginal probability)과 선택된 집단 내에서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최종 선택하는 확률(conditional probability)을 위계적으로 정산할 수 있다(McFadden, 1981) (그림 2 참조).

본 연구는 기존의 CSM 관련연구의 결점들을 보완해 새로운 선택행동모델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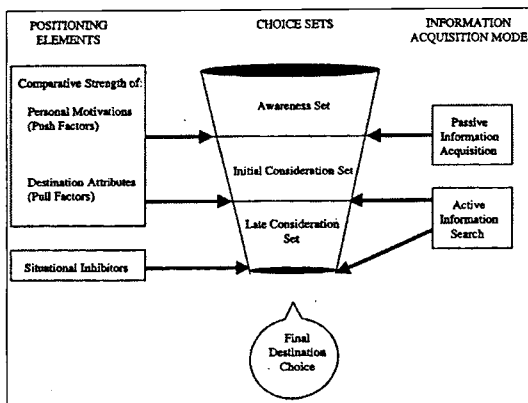


Fig. 1. Choice Set Model.

Source: Botha et al, 1999: 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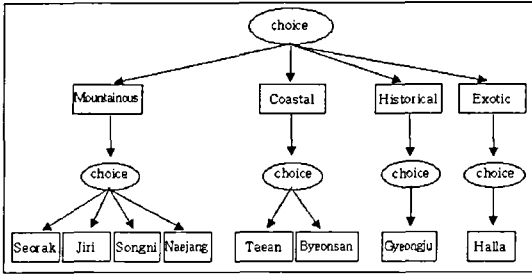


Fig. 2. Proposed Model.

체적으로, 한국의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NMNL을 사용해, (1) 다수의 여름휴가 대상지들은(초기고려 대상지) 먼저 그곳이 갖고 있는 정서적 이미지에 의해 몇 개의 유사집단(후기고려대상지)으로 유형화 된 후, 그 중에서 한 집단이 선택되며, (2) 최종 목적지에 대한 방문 의도는 제한요소의 영향으로 선택된 집단 내에서 결정된다는 가설을 검증함과 동시에 최종목적지 선택의도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 정도를 정산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사람의 정보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의사결정의 경우 그가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보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Marakas, 1999). 관광 대상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여러 가지 단순화전략이 사용 가능하지만, 궁극적 목표는 정보처리에 필요한 노력을 감소시키면서도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가지 단순화 전략, 첫 단계에서는 선호도가 낮은 대상지들을 제외시킨 후, 나머지 대상지들에 대해 서로 간의 장단점을 꼼꼼히 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선택하는 전략을 혼용할 수 있다(Minch and Sander, 1986).

지식의 조직화(organization of knowledge)는 인지심리학에서 발달되어 온 전통적 주제이다. 유형화는 비교해야 할 대상지 개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 지식을 조직화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다(Soars, 2003). 유사한 대상지들을 집단화시키는 것이 그 예이다. 정서적 이미지는 대상지의 집단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변수이다. 유인요인과 추진요인간에는 높은 상관성이 있지만, 추진요인은 관광을 할 것인지 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만 유인요인은 어디를 갈 것인지에 더 큰 영향

을 미친다(Klenosky, 2002). 사람들은 특정 목적지의 속성(유인요인)이 그의 욕구(추진요인)를 만족시킬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 목적지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목적지의 실제 유인요인보다는 인식된 유인요인이 선택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상지의 이미지로써 유인요인을 측정할 수 있다. 이미지란 대상지의 인식과정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 III. 연구 방법

대표적인 여름휴가 목적지인 국립공원을 연구대상지로 결정하였다. 2003년도 숙박관광객수가 많은 순서를 기준으로 하되(국립공원관리공단, 2002), 매력성이 다른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변산반도, 태안해안, 경주, 한라산 국립공원을 연구대상지로 결정하였다.

특정 관광목적지 방문의도는 인식적 이미지(perceptual image)와 정서적 이미지에 의해 결정된다(Baloglu, 1999). 그러나, 전체 이미지는 주로 정서적 이미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인식적 이미지는 정서적 이미지의 선행변수이어서(Baloglu and McCleary, 1999), 본 연구는 각 국립공원의 정서적 이미지를 Russell and Pratt (1980)이 제시한 척도로 측정해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제한요소는 기존 관광분야에서 사용하는 문항에(Botha et al., 1999) 연구자들이 국립공원 4곳의 관리자들에게 공원방문 제한요소를 조사한 후, 개인적(interpersonal), 개인간(intrapersonal) 및 구조적(structural) 제한요소에 해당하는 항목을 각각 4개씩 선정해 측정하였다.

우리나라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가 전형적인 휴가철이어서, 표본추출과 자료수집은 휴가철이 이전인 2003년 6월 25~7월 10일 사이에 여론조사전문기관이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인대면면접으로 수집하였다. 경제적인 이유로 응답자는 19~59세로 한정하였다.

## IV. 결과 및 고찰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대상지의 지각도(perceptual map)를 작성한 후 NMNL 자료를 분석하였다. 지각도는 주관적 군집방법(subjective clustering

methods)로 수집한 유사성 자료를 KYST로 분석해 작성하였으며, 2개의 차원이 적절하였다 (STRESS1 = 0.013). 예상대로, 응답자들은 산악형인 설악산, 지리산, 속리산과 내장산을, 해안형인 변산반도와 태안해안을 서로 유사한 대상으로 평가하였으며, 경주와 한라산을 각각 상이한 성격으로 인식하였다. 정서적 이미지가 후기고려대상지를 분류할 수 있는 독립변수인지를 PROFIT으로 분석한 결과 기존연구와 달리 8개의 변수들이 서로 45°를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독립변수로의 사용 가능성은 확인되었다.

NMNL 분석에 사용될 또 다른 독립변수인 제한요소가 모든 대상지에서 동일한 요인패턴을 나타내는지를 주성분 요인분석한 후 배리맥스로 회전시켜 확인하였으며, 대상지별 요인점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모델 정산 결과, 포괄가치(inclusive value) 값이 0과 1사이이어서 NMNL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McFadden, 1978), 적합도( $p^2$ )는 0.17이었다. 이 결과는 본 연구가 제시한 가설이 옳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한요소가 각 대상지의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직접탄력성으로 확인하였다. 모든 대상지에서 선행(antecedent) 제한요소가 구조적 제한요소보다 더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제한요소의 종류와 무관하게 탄력성의 크기는 이국형, 유적형, 산악형, 해안형 순서이었다. 이 결과는 특정 대상지의 제한요소가 커질 경우, 해안형은 방문의사의 감소가 적겠지만 이국형은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제시한 연구대상지를 방문할 의도가 있는 사람들로 응답자를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 일반화하려면 추후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CSM이 간과하였던 의사결정 단순화전략이 목적지 선택에 사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CSM과 MDS 기법을 NMNL로써 결합시켜 의사결정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1. 국립공원관리공단 (2002)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국립공원역할강화방안. 국립공원관리공단 보고서.
2. Baloglu, S.(1999) A path analytic model of visitation intention involving information sources, socio-psychological motivations, and destination image.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8(3): 81-90.
3. Baloglu, S., and K. McCleary (1999) A model of destination image form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4): 868-897.
4. Botha, C., Crompton, J. L., and Kim, S.(1999) Developing a revised competitive position for Sun/Lost City, South Africa. *Journal of Travel Research* 37(2): 341-352.
5. Klenosky, David B.(2002) The "pull" of tourism destinations: A means-end investiga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40(4): 385-395.
6. Luckett, M., J. Ganesh and P. Gillett (1999) Quantitative tools in tourism research: An application of perceptual maps. In A. Pizam, and Y. Mansfeld, eds. *Consumer Behavior in Travel and Tourism*. New York: Haworth Press, pp.307-333.
7. Marakas, G. M.(1999) *Decision Support Systems in the 21st Century*. Upper Saddle River: Prentice Hall.
8. McFadden, Daniel(1978) *Modeling the choice of residential location*. In A. Karlquist, L. Lundqvist, F. Snickars, and J. W. Weibull, eds. *Spatial Interaction Theory and Planning Models*. Amsterdam: North Holland, pp.75-96.
9. McFadden, Daniel(1981) *Econometric models of probabilistic choice*. In C. F. Manski, and D. McFadden, eds. *Structural Analysis of Discrete Data with Econometric Applications*. Cambridge, MA: M.I.T. Press, pp.198-272.
10. Minch, R., and Sander, G. (1986) Computerized information systems supporting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Decision Sciences* 17(3): 395-413.
11. Russell, James A., and Pratt, Geraldine(1980) A description of the affective quality attributed to environ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311-322.
12. Seoho Um, and Crompton, John L.(1992) The roles of perceived inhibitors and facilitators in pleasure travel destination decision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0(3): 18-25.
13. Soars, B.(2003) What every retailer should know about the way into the shoppers head. *International Journal of Retail & Distribution Management* 31: 628-637.